

용인 농촌마을 기록집 처음

처인의 소중한 자산들과 삶의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소박하고 소소한 기쁨으로
만나길 바라며...



STORY 03

농촌인의 삶
희로애락
농촌살이

용인 농부로 37년 "청경채는 이제 친구같고 자식같지요"

모현 시설채소 생산자연합회
월춘제일작목반
김종환 반장

햇살이 따스하던 4월의 모현에서 김종환 반장(71세)을 만났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서글서글한 눈을 가진 그는 우리를 그의 작업장이자 휴게실인 소박한 컨테이너로 안내했다.

글 고영신 사진 김영욱

김종환 반장은 고향인 충남에서부터 여러 가지 농산물 재배를 해오다 젊은 시절에 용인으로 이사를 왔다. 용인시민으로 벌써 37년을 살아왔고, 21년째 청경채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모현의 농부이다. 그가 농사를 짓고 있는 처인구 모현읍은 시설채소 생산자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다. 6개의 작목반이 있는데, 연합회 농부 95%가 청경채 단일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김종환 반장은 오랜 기간 월춘 제일 작목반의 반장을 맡고 있고, 2022년 농업인의 날에는 농업 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전국 청경채 70%, 모현에서 생산해요

용인에 오래 살았어요. 모현에서 청경채 농사를 오래 했죠. 모현의 농사는 청경채라고 할 수 있어요. 모현이 청경채 재배를 연합으로 한 지가 26년 되었어요. 나는 이제 21년쯤 함께 했죠. 전국의 청경채 60~70%가 모현에서 출하해요. 근데 용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용인시에서도 청경채 모형을 외대 사거리에 크게 세울거라고 해요



김종환 반장이 보여주는 하우스들은 끝이 어디인지 안 보일 정도로 청경채로 가득했다. 초록 잎들이 흙 위로 가지런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신기한 것은 하우스마다 청경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 곳은 여린 새싹에 지나지 않고, 한 곳은 곧 수확해도 될 정도로 많이 자라있었다. 하우스마다 다른 청경채의 크기가 궁금했는데, 그의 설명으로 해소되었다.

청경채 농사는 1년에 여러 번 수확해요. 겨울 빼고는 거의 1달 수확물이라, 1년 6작, 7작을 해요. 5월에 심으면, 6~8월에는 1달에 1회씩 수확해요. 씨를 뿌리고, 잘라내고, 흙을 손보고, 다시 심고, 그게 하우스마다 반복이어요. 그래서 작업이 손에 익은 일손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는 일손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2022년부터 박스 구매비용 7~8%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할인된 가격으로 공장생산 퇴비를 살 수 있는 지원도 있는데 출하 비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 두 가지 모두 농가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생산자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예전에는 퇴비

를 동물의 분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냄새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퇴비를 사용한다. 그 퇴비를 시와 농협에서 1포에 몇 원씩 보조해 주는데, 각 생산자가 필요한 포수만큼 모든 양을 보조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 필요한 만큼 모든 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청경채를 닮은 농부, 김종환 반장

김종환 반장의 하루 일과는 매일 6시 30분쯤 하우스를 향하는 발걸음으로 시작된다. 모든 하우스의 환기창을 열고 직원들이 일하는 작업장으로 가서 일손을 도와준다. 이런 일상을 20년 넘게 함께 한 부인을 농가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에서 수십 년 세월에 대한 고마움이 전해져 왔다. 두 사람은 청경채와 함께하는 세월동안, 자녀 셋을 장성시켰다.

오랜 세월 매일 같이 바라보는 청경채들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하루 하루 수백 개의 박스를 출하시켜 내다보니, 이제는 청경채가 친구같고 자식같다고 한다. 청경채는 이미 김종환 대표의 일부다. 그의 미소가 뽀족한 곳 없이 둥근 입을 가진 청경채와 닮아 보이는 건 나만의 느낌일까.



365일 운영되는 이곳에서 평상시에는 절대 보지 못할 인기척 없는 하우스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다. 도·소매(B2C) 하우스와 도·도매(B2B) 하우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이 대표는 이곳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0만원으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88올림픽 열리던 해 저는 스물셋의 청년이었어요. 이 마을에 자리 잡은 아홉 명의 농부 중 한 명이었죠. 독립하면서 혼자서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작은 땅을 빌려 형님네 집에서 가지고 온 나비란을 키운 것이 이곳의 시작이었습니다. 애정을 쏟는 만큼 새잎을 계속 잘 내어주는 식물들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정직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통영이 고향이라는 그는 혈혈단신 이곳에서 사업을 꾸렸다. 작게 시작한 이 대표의 식물 농장이 지금은 축구장보다 훨씬 큰 남사화훼집하장이 된 것은 실로 놀랍다. 하우스만 12동에 달하는 규모로, 2천여 군데의 농가에서 가져오는 1만여 종의 꽃과 식물들이 위탁 형태로 전국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30년 독심, 꽃으로 전국을 잇다 "화훼 산업으로 새로운 직업을 또 만들 겁니다"

남사화훼집하장 이기욱 대표

하늘이 흐리고 붉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남사화훼집하장 이기욱 대표(56세)를 만났다. 이날은 27명의 임직원 전체 함께 워크숍으로 인한 임시 휴무일로, 갈색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만 가든센터에서 유유히 기자를 반기고 있었다.

글 손수정 사진 김영욱

본격적으로 남사화훼집하장이 설립된 것은 1993년 7월이다. 단 몇 년 사이에 성공한 청년 농부가 되어 잘 나가다가 싶더니 그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IMF가 터졌다. 이때 생긴 빚만 7억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법도 하지만 그는 7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2005년 재기하여 화훼 유통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 수익금은 모두 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고 2010년에는 하우스를 증설하고 지금의 모습을 갖춰 2023년 현재, 연 200억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한다.

화훼의 메카, 용인 남사면

남사면에는 화훼 농가가 많다. 용인의 화훼 시설 면적은 47.06ha로 용인 전체 농경지 중 32.41% 차지하고 있으며, 원삼면과 남사면이 99 농가 29.26ha로 용인시 화훼 재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남사면은 지리적으로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 접근하기 좋아 대형 화훼 집하장과 소매 유통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화훼 농가들은 시설을 현대화하여 재배 품질을 높이고 신품종 출하 등의 노력을 통해 트렌드를 이끌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많은 일들이 이 대표의 손을 통했는데, 일례로 지금은 일반화된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없을 때부터 골프장 등 기업으로 식물을 납품하고 배치하는 '디스플레이어'라는 직업군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상생을 이루기 위해, 소소하지만 장대한 꿈

사업에서는 큰 손인 이 대표지만 식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신이 난다.

식물은 뿌리가 내장이예요. 소화기관이죠.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해서 몸통인 줄기를 통해 잎을 키워요. 결국 뿌리가 소화를 잘 시키도록 물만 잘 주면 식물은 절대 죽지 않아요. 나보다 오래 산다니까. 이거 봐봐요

"이건 수입해 온 카카오에서 키워 낸 나무인데, 수익이 쏠쏠했어요." "이건 말이죠...!" 하며, 이 대표는 소소한 식물들부터 여름철을 맞아 식물원 바깥으로 내어놓은 키가 큰 70년 생 야자나무도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절대 팔 생각이 없다는 특이한 밀동의 굵은 소철은 하도 손님들이 물어봐서 굳이 2천만원이라고 써 놓았다. 계속 잘 키워서 포도존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잠깐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서 들어온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살갑게 맞아주는 이 대표의 태도에서 식물과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한편, 전국의 환자와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던 2020년, 남사화훼집하장의 이 대표는 농촌진흥청과 한국화훼협회가 마련한 꽃 선물 응원하기 캠페인에서 꽃을 기부하며 이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이 대표가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상생에 대한 노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돌보는 만큼 새로운 잎을 내어놓는 식물처럼 사업을 원리 원칙대로 키우고 화훼 농가들을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싶다는 이 대표.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할 때 다른 생각을 하고 큰 꿈을 꾸고 있는 이기욱 대표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흙에서 꿈을 찾는 8년 차 귀농인 자연과 농부가 함께 키워낸 최상급 목이버섯

용인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새암농장 오호영 대표

처인구 이동을 새암농장으로 생산자를 만나러 가기 전까지 목이버섯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은 평소에 즐겨 먹는 버섯이지만, 목이버섯은 특별히 고급 요리에 쓰이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더 많은 궁금증을 안고 오호영 대표와 만났다.

글 전은희 사진 김영욱 사진제공 새암농장

목이(木耳)버섯은 나무의 귀 모양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며 비타민D, 식이섬유, 철분이 풍부하다. 잡채 같은 볶음요리나 탕수육, 짬뽕 등 요리에 많이 쓰인다.

틈새시장을 찾아 시작한 목이버섯 농장

농업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오호영 대표는 농장을 시작하기 전엔 아버지와 함께 제조업체를 운영했다. 2015년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 시기에 2개월간 합숙하며 50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귀농교육에 참여했다. 25명의 교육생 중 7명이 귀농, 1년 후까지 유지된 농장은 단 3곳 뿐. 그중 하나가 오호영 대표의 새암농장이다. 목이버섯은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적고 재배 농가가 많지 않은 틈새시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2016년 80여 평의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하여 4년 후인 2019년에는 1억 5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버섯농장을 시작했을 때는 경쟁농장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귀농 8년 차.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매장에 꾸준히 납품하며 건설한 농업인으로 성장해 왔다. 친환경 급식 40%, 로컬푸드 직매장 30%, 직거래 30%(온라인, 전화) 비율로 출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온라인매출은 1/4로 줄었고, 로컬푸드 매장 공급도 후발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버섯은 원가 중에 인건비 비중이 50% 이상 차지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품질 저하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때문에 아직까지 외부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재배, 유통하고 있다. 이것이 새암농장 목이버섯이 도톰한 육질에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을 지닌 최상급의 품질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혼자서는 어렵죠. 유치원 교사였던 아내도 직장을 그만두고 농장 일을 함께하고 있어요.” 20대 청년인 조카도 곧 후계 농업인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버섯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가공품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몰두해 오고 있다. 목이버섯 재배기술, 저장기술, 뮤즐리 제조기술에 관한 특허를 3개나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버섯피클, 버섯뮤즐리, 버섯잼을 선보여 판로를 확장하였고, 최근 개발한 버섯쌀샌드와 버섯페스트도 기대되는 품목이다.

내가 연구하고 테스트해서 개발한 제품이 이렇게 하나씩 출시되는 게 재미있어요. 매년 신제품 하나씩은 개발하려고 해요.

용인시친환경농업인협회 소비자들과 '팜파티'로 소통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용인시 학교급식이 시작되면서 초기에 <학교급식 출하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생산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회원 중에는 50대가 가장 많고 30~40대는 몇 명 안되요. 새로운 생산자 유입이 필요한데,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라 매우 안타까워요.” 용인시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청년정책과 함께 신규농업인을 포괄하는 정책을 꾸준히 전개하여 농업인들의 이탈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나는 기회를 다양하게 펼쳐서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이를 지지하고 동조하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아야 하죠.

그는 작년부터 용인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회장을 맡아 눈에 띄게 활발한 도농교류,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느티나무재단과 함께 농촌일손 돕기, 팜파티를 진행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과 생태교육, 용인시 먹거리연대 활동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땅을 일구며 사는 친환경 마을공동체를 꿈꾼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맡은 동안에 신규농업인, 특히 친환경농업인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유입되고, 도시농업, 협동농장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또 용인시에 특화된 친환경마을, 친환경으로 함께 농사짓는 마을공동체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스마트팜과 같은 농업 기술들이 급격히 늘어가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농업의 영역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땅과 흙에서 즐거움을 찾는 작업, 쌀농사, 감자, 양파, 마늘 등의 작물을 노지재배하며 살고싶다는 계획을 말한다.

“농업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농업인을 대표하는 일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가 이미 요건을 충분히 갖춘 능력자로 보였다. 땅과 함께 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적인 삶을 꿈꾸는 그의 소망이 더욱 가치 있게 다가온다.

청정자연환경과 6차 산업을 통해 만들어낸

학일마을

영농조합법인 학일마을 김시연 운영위원장

가을 추수가 끝난 겨울 초입에 고즈넉한 원삼 학1리의 학일마을을 찾아갔다. 학일마을은 '학'과 '백로'가 서식해 '학일' 또는 '학동'이라고 불렸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한 3학사 중 한 명인 추담 오달제가 이곳에서 태어난 이후부터 학일리로 전해지고 있다. 커다란 표석과 뜻말이 보이는 학일마을. 그곳에서 김시연 운영위원장을 만났다.

글 강은주 사진 김영옥



학일마을 김시연 위원장 부부

학일마을에 정착하다

강원도 인제가 고향이고 국방부 군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하던 김시연 운영위원장이 퇴직 후 2008년 정착한 곳이 원삼에 있는 학일마을이다. 학일마을은 용인에서 외진 작은 농촌마을로 50여 가구 100여 명이 살고 그중 60세 이상이 90%를 차지하는 해주 오씨 집성촌이다. 연고조차 없었지만, 축사나 공해시설이 없어 마을이 좋아서 그냥 들어왔다고 했다. 언덕 위에 하얀집을 지어 여유롭게 귀촌한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학일마을에 스며들었다.

마을공동체 리더 역할

학일마을은 그저 평범하고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마을에 변화가 이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김시연 위원장이 학일마을에 귀촌하면서부터이다. 현재 체험마을을 국내 대표 농촌체험마을로 변화시켰다. 2009년 총무를 맡은 이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 수익이 많아졌다. 방문객과 매출액이 늘어난 것이다. 사업성과는 연말 총회를 통해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했다. 체험을 운영하며 알게 된 점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의논하였다.

떡 만들기와 고구마 캐기 체험 중인 시민들



점차 체험 수익이 늘어나면서 참여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사이에 농외소득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가공 유통산업, 체험 관광산업이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

신뢰가 쌓여 2010년 말 총회에서 그에게 마을 운영위원장을 맡겼다. 마을 이장은 영농활동과 민원에 힘쓰고 위원장은 소득사업과 대외 활동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이장은 임기가 있지만 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서 15년차 계속하고 있다. 사무장 자리가 공석이라 여러 번의 공고로도 뽑히지 않아 현재 아내(사무장)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희생 봉사 정신은 기본이고 성취감과 지역 주민들부터 신뢰받는 것이라 말을 한다.

학일마을의 자원인 '청정자연환경'

차별화된 체험으로 6차 산업'주역으로 거듭나다

김 위원장은 환경오염 시설들(축사, 공장, 낚시터 등)이 없어 청정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마을의 자원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실시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도시민들을 위한농촌 체험기반 시설을 갖추고 연중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6차 산업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농업·농촌의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마을로도 자리 잡았다.

마을공동체로 6차 산업을 이룬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우리마을은 해냈어요! 마을 주민들이 단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순 1차 산업 체계를 벗어나 2차, 3차 산업으로 전환했고 차별화된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어요.

학일마을의 차별화는 하루에 한 팀(20명 이상)만 예약제로 받고 40여 가지 정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체험객들로 하여금 '오늘은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외갓집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효율적인 체험 진행을 위해 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다수가 고령인 주민들에게 체험 진행 관련 교육을 해 전문화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했다. 꾸준한 노력과 공부로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격증 및 프로그램 계획안이 잘 축적이 된 것도 비법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농촌체험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진두지휘함으로써 체험객들은 더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 학일마을의 재방문은 90%가 넘는다.

마을기업을 통해 장류와 가래떡 가공 유통 사업도 하고 독일식 농촌별장인 체재형 주말농장이자 귀농·귀촌 체험시설인 클라인 가르텐(Klein Garten)을 연간 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마을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을 리더의 희생, 봉사정신이 바탕이 된다면 마을주민들의 참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마을 활동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었죠. 이는 돈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저의 성과이자 업적이죠.

김 위원장이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마을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구의 희생이 아닌 같이 만들어가는 것!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김 위원장 곁에 묵묵히 같이 일하고 있는 아내와 마을 주민들이 있어 든든하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 위원장의 열정이 가득했다. 2024년 또 어떤 열정으로 학일마을을 함께 만들어갈지 기대된다.

1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여기에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 복합화한 산업을 의미한다. 1+2+3=6이라는 의미에서 6차 산업이란 명칭이 생겼다. 예를 들어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특산물을 이용한 재화의 생산(2차 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 창출(3차 산업)을 통해 6차 산업이라는 복합산업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출처: Daum백과

행복을 나누고 싶은 여성농업인

한국여성농업인 용인시연합회 허인순 회장

봄이 오는 싱그런 3월, 처인구의 끝자락 남사에서 닦고 싶은 인생 선배를 만났다. 아담한 체구지만 마음 속 열정이 가득한 그녀는 2023년에 취임한 한국여성농업인 용인시연합회 허인순 회장이다.

글/사진 고영신

수백 명의 여성농업인들을 이끄는 리더

충남 논산시 은진면이 고향인 허인순 회장(64세)은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경기도 안성에 정착하였다.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20대 초반, 그녀는 당시 군 복무 중이던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았다. 두 사람은 펜팔로 시작해서 결혼에 골인한 낭만적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결혼 후 용인댁으로서의 시작은 남사면 시부모님 덕이었다. 친정어머니는 귀한 딸이 용인 시골로 시집가서 많은 시댁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속상해서 한동안 왕래를 끊기도 했다.

그녀의 용인 시골살이 40년은 녹녹치 않았다. 많은 실패도 겪으면서 묵묵히 남편과 농사일을 성실하게 해왔고 함께 많은 어려움을 뛰어넘었다.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 허 회장 부부는 천생연분이다. 이상엽 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허 회장은 남편의 동료이자 아내로서 든든한 지원군이였다. 그런 과정을 거친 지금, 그녀는 수백 명의 여성농업인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있다.



시설하우스를 둘러보는 허인순 회장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마을사업 추진

그녀는 2023년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회원들과 여러 교육을 받았다. 회원들은 ‘오란다 만들기’를 시도했었는데 지금은 공동체활동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현미 강정만들기를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녀는 “연임을 하면 4년까지 회장을 할 수 있다. 내가 맡고 있는 동안은 회원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해 보고 사업성을 키워나가는데 있는 힘껏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리더로서의 포부를 전했다.

사철 수확을 가능하게 한 기름보일러

허 회장은 이제 42년차 전문 농사꾼이다. 그녀의 비닐하우스에는 초록빛의 싱싱한 마늘과 고추 모종들이 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했다. 그녀와 남편은 캡을 씌운 오이(순지오이)를 처음 생산했었고 엄청난 매출을 올려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남사에서 최초로 하우스 내부 기름보일러를 설치했다. 주변에서는 기름값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만류했지만 부부는 끝까지 밀고 나갔다. 덕분에 하우스 내부가 사계절 내내 따뜻하니 수확량이 크게 늘었다. 그 후 주변의 농가들도 하나둘씩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길 건너에 있는 유리로 된 하우스는 그들의 실패작이기도 하다. 유리로만 된 하우스가 열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깨지는 위험과 추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 하우스를 보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인생이란, 농사란 그런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23세에 시집와서 64세가 된 그녀의 인생 철학은 ‘성실, 열정, 도전’이다.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모습

가족 이야기를 하는 그녀는 행복으로 가득

남편 이야기를 부탁하자 그녀는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조금씩 내비쳤다. 실험정신이 강했던 남편은 남사에서 친환경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친환경 재료로 용인관내 학교에 납품하는 것도 정착시켰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말을 직책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고 한다. 허 회장 집 앞에는 특별한 문패가 있다. 하나의 문패에 6개의 이름!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3층집으로 다시 지으며 큰아들 가족, 작은아들 가족, 즉 3대가 함께 살고 있다. 여성도 남성도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정하는 허 회장의 마인드가 엿보이는 문패였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자녀들이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서로들 위아래 층을 오가며 너무나 잘 지낸다.”라며 가족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 차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다

그녀는 앞으로의 개인적인 소망보다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 자신보다 젊은 여성농업인들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허 회장. 2024년 그녀의 제2의 황금기를 기대해 본다.

마을과 사물놀이 전문 예술가와의 흥겨운 만남!

덩 덩덕 쿵덕~! 덩 덩덕 쿵덕~!
요즘 처인구 한 마을에서는 장구,
꽹과리, 북소리가 연일 울려 퍼지
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악
기를 구매해서 사물놀이를 맹연습
중이다. 이게 무슨 일일까?

글 고영신 사진 향음예술원 제공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빠져있는 마을은 바로 처
인구 양지면 제일2리. 60~70대 어르신들에게 사물
놀이의 '흥'을 전수한 사람은 사단법인 향음예술원
김창기 단장이다. 마을 사람들은 용인시 마을공동
체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김 단장과 연결되어 사물
놀이를 배우게 되었다.

마을로 직접 찾아간 전문예술인

고림동에 자리잡고 있는 향음예술원으로 사물놀
이를 배우러 찾아오는 이들은 중학생부터 성인까
지 다양하다. 그러나 김창기 단장이 직접 악기들을
들고 마을로 찾아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
을 돌며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 전문예술가이면서
그동안 수 많은 제자들을 길러온 김창기 단장은 '과
연 열두번의 연습만으로 어르신들이 장구를 다룰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어르신
들을 만난 첫 날부터 그들의 열정에 깜짝 놀랐다.
칠판에 적어준 장단과 번호들이 어려울 터인데, 그
어려운 것을 숙제로 다 해내고 오는게 아닌가! 그
열정에 감동한 김 단장은 신이 나서 가르쳤다.



즐겁게 연습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김창기 단장과 마을 주민들

배워야해서 쉽지 않다. 이런 지원이 계속 이루
어져서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거
를 바랐다.

시민이 배우는 것은 사물놀이 전수에 희
망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물놀이패가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김 단장은 첫 수업에 장구와 북을 가지고 갔
다. 초보들은 팽과리를 잘 깨뜨리기 때문에 마
을 사람들이 직접 구매하기를 권했다. 아무렇
게나 쳐도 될 것 같은 팽과리는 의외로 잘 깨지
는 악기다. 김 단장의 구매 권유는 팽과리였는
데 어르신들은 장구도 북도 징도 다 구매할 정
도로 열정이 넘쳤다. 어르신들의 열정과 강사
의 열정이 더해져 사물놀이를 계획하였고 현
재 맹연습 중이다.

이제 길놀이 연주를 배우고 싶어요

10월 25일. 제일2리 어르신들은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에서 그들이 배운 사물놀이 솜씨
를 자랑할 예정이다. 얼마나 신나게 연주하실
지 벌써 기대가 크다. 이제 제일2리 어르신들
의 바람은 앞서서 하는 사물놀이가 아니라, 마
을을 돌아다니며 신명나게 연주를 해보는 것
이다. 하지만 열두번 수업만으로는 기초를 배
우고 길놀이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김 단장
은 말한다. 악기를 안전하게 몸에 묶는 것부터

김 단장은 제일2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여
러 번 깜짝 놀랐다. 쉽지 않은 장단맞추기를
해내시는 것에 놀랐고 직접 악기를 구매하는
열정에 놀랐고 매번 숙제를 해내시는 것에 놀
랐다. 이분들의 열정이라면, 마을 사물놀이패
가 탄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김창기 단
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용인의 각 마을이
사물놀이를 되살려 경안천 길 위에서 시민 사
물놀이 연주가 가능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실력이 성장해
서 마을 행사나 처인구의 행사들에 설 수 있거
를 바란다.

마을에서 전문 예술가를 만나는 것은 평범하
지 않은 놀라운 일이다! 흔쾌히 마을 안 깊숙이
들어가는 예술인들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손
길이 닿고 탄탄한 기본을 갖추게 되는 마을 사
람들은 그 배움이 끝나고 나서도, 함께 해내는
기쁨에 결코 잠은 북채를 놓지 않을 것이다. 덩
덩덕 쿵덕~! 제일2리 어르신들의 흥겨운 장단
이 들려오는 것 같다.

생각지도 않게 열정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첫날 1시간 30분 연습하고 다음 주에 외워놓고
계셔야 한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다음에 외워
놓고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
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신나서 했지요. 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
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동
네잔치나 신년맞이 행사 등에 어르신들이 참여
하는 전통놀이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김창기 단장
(사)향음예술원 대표 및 예술감독 (2010년~)
1994년 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 대통령상 수상
전) 명지대학교 종합예술원 전통연희예술과 지도교수

마을 어른들이 더 기다리는 모임 모두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활동

그게 단합의 핵심이었죠

백암면 근곡2리 박성현 이장

그림 같이 맑고 푸른 하늘이 유난히 돋보이는 날, 차로 한 시간 남짓 달려 백암 마두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있는 산의 형태가 말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마두(馬頭)마을'로 불리는 백암면 근곡2리에서, 마을 이장 박성현 씨와 그의 아내 임미숙 씨를 만났다.

글/사진 민지연

집에 들어가 보니, 이장님 댁에 나들이 온 부녀회장 정정희 씨와 남편 이종구 씨도 함께 계셨다. 수시로 놀러 오신다는데, 그만큼 이웃과의 왕래가 잦다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정겹게 느껴졌다. 임미숙 씨가 직접 만든 약식과 앞마당에서 딴 과일, 차를 내어주셨고, 네 분과 나눈 근곡2리 마을공동체 이야기는 간식만큼이나 풍성했다.

마을 입구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된 인연

백암면의 59개 리를 통틀어 가장 농촌 풍경을 잘 간직한 마을, 가장 변화가 없는 마을일 것 같아요.

박 이장의 말처럼, 마두마을은 실제로 30여 가구 중 26개 가구가 농사를 짓는 소박한 마을이다. 그랬던 마을이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인연을 맺으며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것은 작년 봄이었다. 이장들끼리 모인 회의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얘기를 듣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용인 시청을 찾아갈 만큼 박성현 이장은 이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마두마을 주민 단체사진

마을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마을 진입로(17번 국도 옆 굴다리 및 하천 일대)에 늘 쓰레기와 잡초가 가득했던 것을, 주민들도 몹시 개선하고 싶어 하던 참에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나 현장포럼과 실행사업으로 본격적인 '마을입구 꽃길가꾸기 사업'이 시작됐다.

“마을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70~80대 어르신들부터 최고령인 93세 어르신까지 나서서 잔뜩 쌓인 쓰레기를 주웠어요. 부녀회장님 댁에서는 장비(포클레인)를 가지고 나와 직접 땅도 골라줬고요. 예쁜 꽃을 사다 심고 물주고 비료 주는 것까지 30여 명의 주민들이 다 같이 했어요. 마을 입구가 화사해져서 좋다는 어르신들 얼굴도 덩달아 환해졌죠.” 이 말을 전하는 박 이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마을길 가꾸기로 시작된 마두마을의 단합은 시작에 불과했다.

마을 단합이요? 모여서 약식 만들고 비누 만들다보니 저절로 됐어요

2024년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받은 예산 200만원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 고민했다는 박 이장은 주민들과 의논 끝에 결론을 내렸다. 절반은 마을입구 꽃길가꾸기 사업에, 나머지 반은 마을 분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활동에 쓰기로 했다.

그렇게 진행된 것이 피자·약식·비누·인절미 만드기였다. 사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마을 부녀회의 공이 컸다. 평소 주민들과 요리를 함께하고, 만든 음식을 나누길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 모임을 주도하며 요리 강사 역할을 도맡게 되었다.

처음엔 좀 막막했어요. 한정된 예산을 알차게 쓸 방법도 고민되고요. ‘주민들과 쉽게 할 수 있는 걸, 가능한 만큼, 재미있게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어요. 약식은 제가 자주 만들던 거고, 비누 만들거나 떡 만들기 같은 활동은 부녀회와 함께해볼만 하겠다 싶었죠.

임미숙 씨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재미있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곁에 있던 정정희 부녀회장도 맛장구를 쳤다.

“활동해 본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더 참여하고 싶어해요. 다음 일정도 궁금해하고요. 마을회관 방송이 통신 문제로 일부 집에서는 안 들려 문자 공지를 하거든요. 전에는 대부분 문자 볼 줄도 몰랐는데 공지를 보려고 문자 보는 법도 다들 배웠죠.”



근곡2리 박성현 이장 부부



마을길가꾸기 현장 - 마두마을 최고령인 황호순(93세)씨도 참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건강약식만들기 현장



마을정자에서 빨래비누 만들기를 하는 주민들

더 나은 마을공동체는 무엇일까?

박성현 이장이 그리는 미래의 마을공동체

“저는 아내와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늙고 아프다는 이유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모인 요양병원이 아닌 친한 사람들과 보듬고 살다 가고 싶어요. 마을 어르신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라고 박 이장이 말하자 모여 있는 네 분 모두 동의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 요양원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의료 환경만 뒷받침되면 굳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마을공동체를 유지한 채 살다 갈 텐데 아쉬워요.” 실제로 인근 마을 보건소들조차 사라지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다. 하지만 작은 마을이라고 의료와 돌봄이 필요치 않을까? 미래의 마을공동체가 공동체의 문화와 나눔을 넘어서, 한 마을의 의료와 돌봄까지 확장된 형태이길 바라는 것은 필자도 마찬가지다. 인정 넘치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나눴던 사람일 수록, 그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짙을 것 같다.

마두마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2년차 새내기 이장님의 열정만큼은, 20년차 못지않다고 느꼈기에 무엇을 유지하고 싶은 건지 그 마음이 더욱더 와닿았다.

마을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놀라웠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마을 예전 이장님인 이종구 씨는 “처음에는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잘못해서 동네 망신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 박성현 이장이 잘 이끌어 준 덕에 단합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라며 칭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잘해 준 덕분이죠. 제가 아직 2년차 밖에 안 된 새내기 이장인데 선진지 마을 견학이나 강의를 통해 공동체가 뭔지 알게 됐어요. 마을과 주민들에 대한 애정도 더 많아졌고요.

근곡2리에서 축사 운영을 시작하며 이 마을에 정착한지 어느새 27년. 마두마을이 제2의 고향인 그는 시골마을의 인심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환경교육 특화마을 남산마을을 이끌어 가는 힘

남사읍 아곡1리 박지영 이장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생기가 넘친다. 이것이 남산마을 박지영 이장의 첫 느낌이었다. 통화만으로도 에너지가 전해져 오는, 보기 드문 여자 이장은 실제로 어떤 분이실까? 궁금증을 잔뜩 안고 찾아간 만남의 장소는 남사읍 아곡1리 마을회관이었다.

글 민지연

이곳은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2026년 3월)가 들어설 예정인 구, 남곡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반도체로 들쭉이는 남사읍으로 가는 길 곳곳에는 도로 공사가 한창이었지만, 도착한 아곡1리의 마을 풍경은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반갑게 마주한 박지영 이장은 예상대로 시원시원한 목소리에 예상보다 훨씬 동안인 친근한 모습이었다.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 통해 몹시 뜨거웠던 작년 여름을, 더 뜨거운 열정으로 보냈다는 박지영 이장(51세)과 마을 어르신들과의 핫한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졌다.

배움을 통한 역량 강화에 재미를 느끼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을 코디네이터 교육이에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하루 4시간씩, 오랜만에 정말 공부 열심히 했죠.



박 이장이 말한 ‘마을 코디네이터, 퍼실_회의의 기술’ 교육은 2023년 용인시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뤄졌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회의하는 기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술은 물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배웠다. 한마디로 마을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배우는 수업이었다.

마을 코디네이터 수업 덕분에 초보 이장이 마을공동체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박 이장은 오래 전부터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경력자다. 이장으로서는 올해가 3년차지만, 그 전에 12년간 마을 총무 일을 봐 왔기 때문이다.

98년도에 ‘시집오면서’부터 이 마을에 살기 시작했다고 말한 그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아버님이 먼저 중풍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치매로 오래 고생하셨지만 코로나도 잘 견디고 지내시다가 몇 해 전 임종하셨다고 했다. ‘효부’라는 칭찬에 손사래 치며 “모실 수 있을 때 모셔야 한다.”고 지나간 시간들을 그리워했다. 마찬가지로 이장 일도 조금이라도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것 같았다는 그녀다.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단합하는 주민들이 만든 쾌거 “환경특화마을 - 남산마을”

아곡1리 남산마을에는 약 110세대가 산다. 대부분이 농사짓는 어르신들이라 걱정이 많았던 박 이장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의 첫 회의가 놀람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인원이 얼마나 모일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어르신이 유모차 끌고, 오토바이 타고 삼삼오오 모이신 거예요. 그리고 회의 때 손들고 본인 생각들을 발표하시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렇게 희망적으로 시작된 2023년 용인시 시군역량강화사업이 남산마을에서 꽃을 피운 건, 마을에서 쓰일 의자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부터였다.

용인자연휴양림에서 목공 수업을 받아 직접 톱, 전동드릴 등의 공구를 사용해보며 의자의 뼈대를 만들고, 이어서 그림 지도해주는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의자에 어울리는 그림도 직접 그리고, 직접 채색하면서 화가가 된 듯 다들 행복해 하셨다고 한다.



남산마을 히어로즈 멤버



남산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의자들과 목공수업 전경



실제로 남편과 같이 부부의자를 만드셨다는 권오숙(78) 씨는 “우리가 직접 만든 의자를 볼 때마다 뿌듯해서 마을회관 앞에 뒀어요. 회관에 올 때마다 내가 먼저 닦아내고 관리해요.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도 좋아졌어요.”라며 생생한 후기를 전해주었다.

교육 받은 것 이상으로, 자기주도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큰 힘이에요

남산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관련 활동을 주로 했다. 용인 포곡과 충남 아산에 있는 소각장 견학을 통해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고, 1박 2일 워크숍으로 간 낙동강의 깨끗한 환경을 보면서 썩은 냄새가 나던 마을의 완창천이 비교되며 깨끗하게 관리해야겠다는 의식도 생겨났다고 한다.

특히 박 이장을 포함해 마을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여섯 명의 정예멤버들 - 권오숙(78) 씨, 권정희(70) 씨, 송완순(74) 씨, 최미자(70) 씨, 이춘자(69) 씨- 일명 <남산마을 히어로즈>들의 활약이 마을을 탈바꿈시켰다. 정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수시로 마을의 쓰레기 줍기 활동과 분리수거를 실천하며 마을 주민들의 동참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농사 후에 나오는 각종 쓰레기가 마을회관 앞에도 쌓이고, 분리수거 없이 한 종량제 봉투에 다 담겨 나오거나, 종량제 봉투값도 아까워 그마저도 소각했다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그 덕분에 남산마을은 이제 ‘환경특화마을’로 더 유명해지고 있다. 필자가 마을에 두 번째 방문한 날도 실제로 환경관련 단체에서 취재를 나와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환경교육 특화마을 프로젝트 시범마을로 선정된 후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협조는 더욱 날개를 달았다고 하니 어찌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박 이장과 마을 주민들은 같이, 여럿이의 원동력을 보았다고 한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이웃 마을에 환경지킴과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해보자고 알리러 다닐 계획이다. 배움을 떠나, 이제 또 다른 가르침을 준비하는 남산마을과 박 이장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다.

용인 농촌마을 기록집 처음

처인의 소중한 자산들과 삶의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소박하고 소소한 기쁨으로
만나길 바라며...



STORY 04

공동체 활동
마을에
더하다



백암면 안채리 수정산 기슭에 스며들다

백암 씨앗도서관 양춘모 대표

냉이꽃이 가득한 백암면 수정산 기슭에서 백암 씨앗도서관 양춘모 대표(63세)를 만났다. 백발에 검게 그을린 손에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글 강은주 사진 양춘모



양춘모 대표

그는 산과 들을 누비며 씨앗, 풀, 꽃, 나무 등 용인에 자생하는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젊은 시절 시민단체 활동으로 다져진 마음으로 용인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아 용인의제21, 용인환경정의, 용인마을협동조합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 토종 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수정산 아래에 있는 백암면 안채리에 토종닭을 키우고 씨앗 심을 텃밭을 일구며 씨앗도서관을 만들고자 한다. 정작 본인의 직업은 택시 기사다.

오래전부터 가졌던 꿈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좋은 점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낮에는 산에 다니며 농사를 지어보고, 저녁에는 택시 기사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으며 양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청년 시절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그가 좋아하는 산을 다니기 시작했다. 산을 통해 야생화, 나무 등의 사진을 찍고 기록하던 중 용인의제21(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에서 용인에 자생하는 나무 도감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2007년 <용인나무이야기도감>, 2008년 <용인풀꽃이야기도감>, 2009년 <용인곤충이야기도감>에 참여하여 용인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용인마을협동조합에서 ‘농부학교 이음’을 만들어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지었다. “삼과 호미만 주변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붓고 스스로 노는 방법을 찾는다.”고 그는 말한다.



토종씨앗으로 심은 텃밭

동백동에서 7년 동안 농부학교를 운영하다 지금은 마성리에서 용인 퍼머 컬처학교, 논학교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비닐과 화학비료 안 쓰기 활동을 하고 있다.

마성에서 비닐과 화학비료를 안 쓰는 ‘삼무농법’으로 농사를 하니 곤충들이 오기 시작하고, 발벼를 심어보니 그 벼 싹을 갈아 먹기 위해서 메뚜기가 오더라고요. 자연이라는게 참 오묘합니다. 땅에서 놀면서 아이들의 순수함을 어른들이 보고 배우고, 어른들이 농사짓는 것을 보며 아이들이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둘 활동하던 양 대표는 우리 씨앗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면서 씨앗도서관을 용인에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용인이 정치적으로 보면 도농복합 도시라고는 하지만 그런 활동들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양 대표가 기존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잘 접목할 수 있겠다 싶어작년에 백암면 안채리에 들어왔다. 처음 시작한 일은 토종닭을 키우는 것이었다. 장터에서 닭 10마리와 동네 분에게 알 품는 닭을 사서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다. 여러 고난

끝에 지금은 토종닭 13마리와 자연 부화된 병아리 5마리가 넓은 공간에서 거닐고 있다. 풀 먹고 낳은 거라 색과 크기는 다르지만 아침에 낳은 달걀 5개를 내미는 양 대표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씨앗도서관을 추진하다

양 대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토종 종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토종 종자는 기후나 땅의 기억이 씨앗에 담겨 있다고 한다. 작년에는 토종 감자를 심어 수확해서 동네 분들과 나누면서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올해는 50여 종의 토종 씨앗을 채종 및 수집하는 것이 목표다. 차근차근 하나씩 동네 분들과 만들어 가면서 좋은 씨앗도서관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씨앗을 담다

햇살 좋은 봄날, 씨앗도서관의 첫걸음으로 검은찰옥수수, 대파, 용인오이, 조선오이 그리고 고추인 청롱초, 수비초, 안질뱅이, 진안토마토, 옥밭이, 옥지기가, 쇠뿔가지, 먹골참외, 청노랑참외, 그 외 땅콩, 수세미 등을 심었다. 참 정겨운 우리말 씨앗이다. 씨앗도서관 1호 회원이 되고 싶다. 곧 여름이 오기 전 내릴 비에 잘 자리 잡고 쑥쑥 자라기를 기대해 본다.



삼무(三無)는 무멀칭, 무농약, 무화학비료 농법을 말한다.

가창리에는 323세대 645명(남자 354명, 여자 291명)이 거주하고 있다.

내창 : 예전에 환곡미를 저장하던 창고가 두 개 있었는데 동구 밖에 있는 것을 바깥 창고, 마을 안쪽에 있는 창고를 안창, 안채이 등으로 불렀다. 이를 한자로 옮겨 쓸 때 내창(內倉)이라 하였다.

출처 : 용인 백암면(白岩面)의 유래(由來) - 백암면의 어제와 오늘 (작성자 땅박사)



마을을 넘어 달콤함을 전하는 사람들 달콤그림책

한 마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 낯선 마을로 이사를 와서 나를 온전히 녹여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2리에 있다.

글/사진 고영신

적당히 덥고 적당히 그늘이 드리워진 9월의 첫날. 양지IC를 왼쪽에 두고 5분가량 더 가서 제일2리에 다다랐다. 이런 골목 안에 학교가 있다고? 편의점 하나 없는 골목들을 지나니 셔틀버스가 보이고 초등학교가 보였다. 단출한 학교 건물에 비해 넓은 운동장. 운동장을 둘러싼 키 큰 나무들. 그 나무들이 만들어낸 그늘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돛자리를 펴고 있었다. 운동장 한편에는 농구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치는 아이들과 아빠들이 있다. 누구 하나 핸드폰을 보려고 고개를 숙인 사람이 없었다.

소소하지만 진정한 플리마켓

놀이 딱 좋은 날씨의 일요일. 제일초등학교와 마을 엄마들의 그림책 동아리가 함께 마련한 플리마켓이 열렸다. 그림책으로 마을에서 달달해지고 있는 그들은 바로 <달콤그림책>동아리 회원들이다. 이날 열린 플리마켓은 소소했지만 특별했다. 30분은 무료나눔, 30분은 유료판매로 정말 딱 1시간만 열리는 플리마켓~! 돛자리에 놓인 물건들은 아이가 어릴 때 쓰던 보드게임부터 사놓고 쓰지 못한 권투장갑, 살이 찌서 못 입는 멋진 스커트, 손으로 직접 뜯 수세미, 선물 받아 사용 못 한 샴푸 등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듯 얌전히 숨죽이고 있었다. 이웃들은 물건들의 쓰임새는 무엇인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물어보았다. 무료지만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신중하게 따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플리마켓을 보았다.

서로 달라서 더 탄탄해진 그림책동아리

달콤그림책은 제일2리 마을 안에서 공동의 관심사로 시작된 공동체다. 다른 지역의 작은 책방에서 그림책 만들기를 접하고 마을 안에서 그림책을 읽고 만드는 모임을 가진 지 3년째다. 그동안 회원들이 이사도 가고 변화도 있었지만, 조현욱 대표와 주요 멤버들은 꾸준히 이 동아리를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10여 명의 회원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서 1권의 그림책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는 회원 11명이 각각 자신의 그림책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3년이 흐르는 동안 이들은 ‘꿈의 학교’를 운영해 보면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만드는 작업도 해보았다. 조현욱 대표의 말에 따르면 동아리 내에는 기획, 미술, 제본 등 각 멤버의 주된 역할이 달라서 서로 합이 잘 맞게 돌아간다고 한다. 이것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마을 안에서, 용인 안에서 조용히 탄탄한 단체로 자리잡은 비결이 아닐까!
달콤그림책 회원들은 대부분 제일2리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사를 왔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 좋은 곳을 알아보다가 제일초등학교가 마음에 쏙 들어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즈넉한 마을에서 여유롭게 뛰노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이들을 움직였다. 그래서인지 제일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푹푹 잘 뭉치는 학교로도 유명하다.

이곳에 와서 너무 좋아요. 아파트에서는 다른 집과 터놓고 지내기가 어려웠는데 여기는 이웃의 아이들도 내 아이처럼 키워요. 혼을 낼 일이 있으면 혼내기도 하고요. 이웃들이 전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이웃과의 파티랍니다.

플리마켓 안에서 그들이 나눔하는 모습을 보면, 이웃이라기보다는 형제나 사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웃과의 파티라는 그들.

그 파티를 주로 이어가게 만드는 달콤그림책 동아리 회원들. 그들이 참 보기 좋았다. 제일2리에서 13년을 살고 있는 조현욱 대표처럼 대부분의 주민은 이주민이다. 아니, 이미 수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90%가 넘는 마을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고향이고 삶의 첫 기억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마을 안에서 뭉치기 위해서 열심인지도 모른다. 이미 그들이 제일2리였다.

동아리 이름이 왜 <달콤그림책>인가요?

모임을 만들 당시에 회원들이 모두 달달한 것을 먹고 싶어 해서 정말 단순하게 <달콤그림책>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울가울에 마을 아이들과 마을지도 만들기를 시도한다. 그리고 준비 중인 개인 그림책들이 나오면, 원삼의 똑마켓 카페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전원을 찾아온 이웃들도 아이들이 초등 4~5학년이 될 즈음에는 학습환경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고 한다. 달콤그림책은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이 마을을 떠날 마음이 없도록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을 밖에서는 마을을 넘어서 이웃의 정을 실천하고 있다. 원삼의 맹골마을 어르신들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길에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은 월 2회 무료 미술수업을 해드리고 있을 정도로 마을들이 연결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전산작업이 어려운 맹골 어르신들께 흔쾌히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는 그들은 제일2리의 달콤함을 다른 마을로도 전하고 있었다. 한 마을이 행복하면 그 옆 마을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그 옆 마을도! 옆 마을도!



나르샤 수채화 손자영 대표

처음에 나르샤 수채화라는 이름에 이끌려 이 공동체가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었다. 막상, 사전답사차 손자영 대표를 만났을 때는 처음의 생각이 바뀌었다. 공동체는 여느 예술 수업이나 예술모임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이 공동체를 설립한 손자영 대표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고 그녀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다.

글/사진 이영근



손자영 대표

지금은 이곳이 원삼면 SK하이닉스 공장 개발 사업 중이고 곧 변화한 지역으로 바뀌겠지만, 전에는 용인의 오지 중 한 곳인 여기로 와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평범하지는 않다. 그녀가 16년 전 자리 잡은 곳은 원삼면 죽능6리, 지금은 원삼면 후평리로 불린다. 외모로 봐서는 가녀린 중년여성인데 풍기는 인상은 다부지고 강한 분으로 보인다.

꿈을 찾아

이 지역에 특별한 연고는 없다고 한다. 안산에서 교회 활동을 하고 학생들도 30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100명이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같은 곳을 갈 때마다 변변치 않은 시설 때문에 화도 나고 아쉬움도 많아서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이유와 더불어 건축일을 하는 남편이 허리를 다쳐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요양을 해야 하기도 해서 이런 공간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시골을 찾아 여러 곳을 다녀 보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적당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본 곳이 이곳 죽능6리이다. 계곡도 있고 주변 산과도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녀가 딱 원하는 곳이었다. 워낙 오지이다 보니 이 동네에 있던 분들도 떠나고 지금 이곳을 얻기에는 가격 등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고 적당한 곳이었다.



나르샤 수채화 작업공간과 수채화 작품



이 건물은 초창기에 도자기를 하시던 분이 도자기 박물관으로도 사용해서인지 향토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또한 마음에 들어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의 의도대로 수련회, 대학 MT, 각종 단체 모임 장소로 운영하고자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교회 관계자들을 통해 공간 활용을 확대해 나갔다. 워낙 오지이다 보니 찾아오기가 어려워 네비게이션 등록을 하여 주변 펜션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기도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었다.

마을 원주민들과 함께 스며들다

마을 원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궁금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마찰이 있었다. 단체를 주로 받고 대형 버스나 차량 통행이 잦으니 불만들이 나오기도 했다. 도회지에서 와 거들먹거린다니 등등 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정착하려면 마을의 협조는 필수적이라 마을회비, 마을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3~4년 그렇게 하니 이장님을 비롯해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남편분이 이장까지 하면서 마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어르신 반찬 봉사 등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남편의 성정이 마을에 스며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녀도 고추 따기, 풀 뽑기 등 농사일을 거들다 보니 자연스레 친하게 되고 덕분에 농사일도 배우고 지금은 직접 농사도 많이 하고 있다.

마을 활동을 넓혀가며

처음 시작한 게 마을 부녀회장으로 활동하고, 마트 봉사, 김장 담그기로 불우이웃돕기, 마을 청소 등을 하였고 마을해설사 역할도 하고, 퍼실리테이터도 배워 마을공동체 활동을 넓혀 나갔다. 예전에 배워 둔 종이 공예, 일러스트 재능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혀 지금은 나르샤수채화 공동체를 만들어 동네 분들은 물론이고 조금 멀리서도 이곳을 찾아 함께 예술 활동을 하고 전시도 하고 있다.



나루이야기 입구

또 다른 공동체 활동도 만들어 나갈 것 같다. 향아리를 좋아해서 장 만들기도 하고 요리 솜씨도 있어 또 다른 공동체 활동도 기대가 된다. 인터뷰 진행하는 동안 이런 분들이 곳곳에 계시거나 많아진다면, 그리고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활성화된다면, 산업화를 통한 마을 발전 방향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 발전과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다.

여러 걱정을 하면서

손자영 대표는 지금 한창 공사로 인한 소음이 나 먼지가 마을을 힘들게 하고 있고 앞으로 SK하이닉스가 들어서면 주변이 더 번잡한 곳으로 바뀌어 질 텐데, 이곳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체지를 찾아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곳으로 가서 동지를 다시 만들려면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듯 하다. 항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념에 가득 찬 그녀를 보면 어디를 가든 멋진 마을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는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매력적인 마을육아 공동체 못빼다 이숙희 대표

‘못빼다’라는 독특한 이름의 공동체에는 바로 ‘못하는 거 빼고 다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멋진 뜻이 숨어 있다. 함께, 그리고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모인 ‘못빼다’ 가족들과 이숙희 대표(53)를 만나러 역북초등학교로 향했다.

글/사진 민지연

못하는 거 빼고 다 잘하는 아이들,
공동체가 같이 키우면 가능하죠.

이날은 특별히 못빼다 공동체만의 색깔 있는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운동장 한쪽에는 열세 가족, 약 5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섞여 있어 물어보니, ‘못빼다’에 속한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지만, 형제자매들이 함께 참여하기에 어린 친구들과 중학생들도 몇몇 속해 있다고 했다. 가족 구성원 중 막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가족 역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졸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날 역시 현재 활동 중인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를 졸업한 가족과 합류 전 공동체와 호흡을 맞춰보기 위해 참여한 가족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었다.

가장 분주하게 운동장을 오가던 이가 바로 이숙희 대표였다. 그녀는 ‘못빼다 운동회’의 진행자이자 심판, 그리고 본업인 세 딸(이윤서, 윤하, 윤지)의 엄마 겸 공동체 자녀들의 이모 역할까지 일인다역을 맡고 있었다.

못빼다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

큰 아이 어릴 때 동네 엄마들이 영어 사교육을 같이 듣자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는 제 아이가 머리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아이로 컸으면 해서 이사를 왔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이 학교 짝꿍 엄마한테 연락한 게 시작이었죠.

그렇게 한터초등학교에서 마음이 맞는 일곱 가족이 공동 육아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인근 학부모들까지 흡수해 대대1리(용인 처인구 양지면)를 대표하는 마을공동체가 되었다. 역북초등학교 교사이기도 한 이 대표의 헌신이 지금의 ‘못빼다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칭찬이 자자했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제가 혼자 일한다고 뭐라고 해요. 다들 서로 돕겠다는 마음이라 손발이 착착 맞아요.”

특히 처음부터 함께 ‘못빼다’를 이끌어 온 김미진 씨(중3 박경원, 초6 박건영 엄마)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지금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저희는 서로를 꽃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라일락, 진달래, 릴리, 해바라기, 수국 이런 식으로요. 모두가 서로에게 향기를 주는 꽃이 되자는 의미였는데 정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누고 있어요.”

단합이 잘 된다는 이 대표의 말처럼 ‘못빼다 운동회’는 조금 남달랐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한 팀이 되어 협동하는 게임이나, 이불 위에 아이를 태우고 달리는 일명 이불썰매 게임 등은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은 엄마들의 아이디어였다. 그래서일까? 곳곳에서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연소 참가자인 김수호(7)는 “일 년 중 운동회 날이 제일 좋아요.”라며 신나 했다. 머리에 쓸 바구니나 나무 골프채 등 게임에 필요한 준비물 역시 대부분 ‘엄마 아빠표’였고, 경품 선물까지도 참여한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이었다.

누가 떠먹여 주는 대로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직접 만들고 즐기는 ‘적극 참여형’ 잔치였다. 아이도 부모도 누구하나 빼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던단다. 초반에는 특히 아빠들의 참여가 저조했지만, 먼저 참가한 다른 아빠들의 모습을 보며 서서히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윤홍구 씨(고림초6 윤유한 아빠)는 “이만큼 끈끈한 네트워크가 없어요. 아이나 저나 어디서 만난 친구와 이렇게까지 마음을 나눌 수 있겠어요.”라며 이런 기회와 공동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처음 게스트로 참가한 한 아빠 역시, 공동체 육아가 정말 의미 있다고 했다. “도시에서는 학원 셔틀을 돌면서 아이들이 거의 휴대폰 게임만 해요. 학습 말고는 교류도 어렵죠.



못빼다 운동회 2인3각 경기



못빼다 운동회 협동볼 경기



그런데 여기서는 가족 대 가족이 만나고 아이들이 형,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사귄 수 있어 좋네요.”

특히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은 다 같이 떠난 여행을 최고로 손꼽았다. 이정아 씨(한터초4 김수아, 7살 김수호 엄마)는 올해 평창 여름캠프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감감한 백룡동굴을 탐험했는데, 오직 소리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눈이 퇴화된 새우를 보며 아이들은 신기해했고, 저랑 남편도 힐링이 됐죠.” 이 밖에도 남산 꼭대기에 같이 오른 날, 신촌과 홍대 등 대학교 탐방을 한 날, 갯벌 탐사에 갔다가 갯벌 청소(플로깅)까지 함께한 날, 강원도 산 중턱에서 캄캄한 밤 쏟아지는 듯한 별을 본 날 등 가족들이 ‘못빼다’ 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억으로 꼽은 날은 무수히 많았다.

엄마인 이 대표의 노력을 지켜봐 온 둘째 이윤하(용신중1) 역시 “가장 좋은 건 여행하며 부

모님들, 특히 아빠들과 바깥놀이할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협동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라며 의젓하게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나, 학교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힘든 부분들을 공동체를 통해 보듬어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대표의 가장 보람된다고 했다. 서로 다른 가족의 문화를 관찰하며 좋은 점을 쑥쑥 배우는 ‘자연스러운 교정효과’ 역시 공동체가 갖는 큰 힘이라고 말했다.

혼자서는 어려웠을 것들을 함께 키우는 덕에 ‘못하는 것 없이 다 잘 해내고 있는 공동체’가 참 근사해 보였다. 필자가 일곱 살 아들(도율)을 키우며 취재하는 날에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동행 취재하게 되어서였을까? 나에게도, 혹은 내 이웃에게도, 마을이 함께 키우는 선한 공동체가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삼에는 주민이자 강사인 마을강사가 있습니다!

2024 용인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완료지구 배후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원삼에서 즐거운 나' 활동을 마치며

두창6리 김혜란

2024년 5월 마지막 주 어느 날, 시군역량강화사업 활동가 네트워크, 서로 성장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배후마을 활성화 마을강사 등 조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20여 명의 주민이 모였다.

어떤 분들은 부녀회장, 어떤 분들은 체험강사, 또 어떤 분들은 치유농장 대표들이었다. 서로 분야는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원삼면의 주민이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렇게 모인 우리는 “뭘 하려는 거지?”, “교육받는 건가?”, “작년에 했던 문화섬 탈출을 또 하나?” 등 등 저마다의 질문을 갖고, 초빙된 전문강사의 마을 활동 사례교육을 한 달 동안 받았다.



사실 교육을 받는 내내, 아니, 마지막 행사인 10월 5일 원삼면 허수아비 축제를 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수시로 브리핑했겠지만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알아들을 귀가 없었다.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상과 합의된 목적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부분 처음 만난 사이고, 얼굴은 알더라도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없는 사이이다. 그렇지만 서로의 차이를 넘어 원삼면 5개 마을, 참여주민 연인원 700명에 이르는 큰 문화사업을 해낸 것은 분명한 듯하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자며 만나자마자 교육 일정을 잡고, 각자 해왔던 프로그램을 말하면 누군가 보태주고 빼주며 그것이 곧 사업계획서의 기초가 되는 신기

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일례로 요리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버섯 스프레드 만들기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교육받는 어느 날 다과로 준비된 것이었는데 모든 분이 맛을 보시고 “이걸 만드는 체험을 하면 좋겠는데요?”하면서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직접 짜고, 순서를 정하고, 시연해 보면서 ‘원삼에서 즐거운 나’라는 제목으로 7가지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제목 역시 함께 만든 것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원삼’에서 누구보다 ‘나’가 먼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제목이었다.

14명의 강사가 둘씩 짝을 지어 문화프로그램을 해 본 적이 없는 5개 마을(두창5리, 사암5리, 미평2리, 맹1리, 사암3리)을 대상으로, 치



미평2리



사암 3리



유 테라리움, 생활도자기, 천연화장품과 천연 염색 여름 바지, 종이접기, 도어벨과 짚공예, 웃음치유와 요리교실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은 어르신 한 분 한 분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해드리고 사진을 찍어드리는 것으로 두 달여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다.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5개 마을 80여 명의 주민들은 주 1회씩 일곱 번의 만남으로 함께 만들고, 입고, 먹고, 찍고, 한바탕 웃으면서, 나와 마을과 마을회관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닫혔던 마을회관이 열리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의 마음도 열리고 부드러워졌다.

매년 가을이면 열렸던 ‘원삼면 황금들녘 허수아비 축제’가 이번에는 마을거점 공간으로 새로 개관한 이음센터에서 열렸다.

그동안 만들었던 테라리움, 도자기, 바지, 화장품, 도어벨과 리스, 허수아비 종이접기, 버섯잼을 모아 축제의 한 부분으로 전시하게 되자, 본인 작품을 보기 위해 5개 마을 주민이 자연스럽게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덕분에 축제도 살리고 주민의 자부심도 올라가는 축제가 되었다. 마을 축제는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며 즐기는 자리여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제5회 허수아비 축제는 관람하는 축제에서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되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마을강사 역시 진행하였지만 스스로 즐기고 힐링되는 경험을 했고 나의 노년도 이웃과 함께 활기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감사한 경험이었다.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데서 시작하는 마을공동체가 좋다. 나의 남은 생을 함께 할 따뜻한 이웃이 있는 마을을 꿈꿔 본다. 차라리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사람의 마음을 모으기는 어렵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함께하는 주민, 마을강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주민이자 마을강사인 우리는 그 가능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오늘도 만남을 가진다. 모두 함께여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



맹1리



사암 5리



두창5리

용인 농촌마을 기록집 처음

처인의 소중한 자산들과 삶의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소박하고 소소한 기쁨으로
만나길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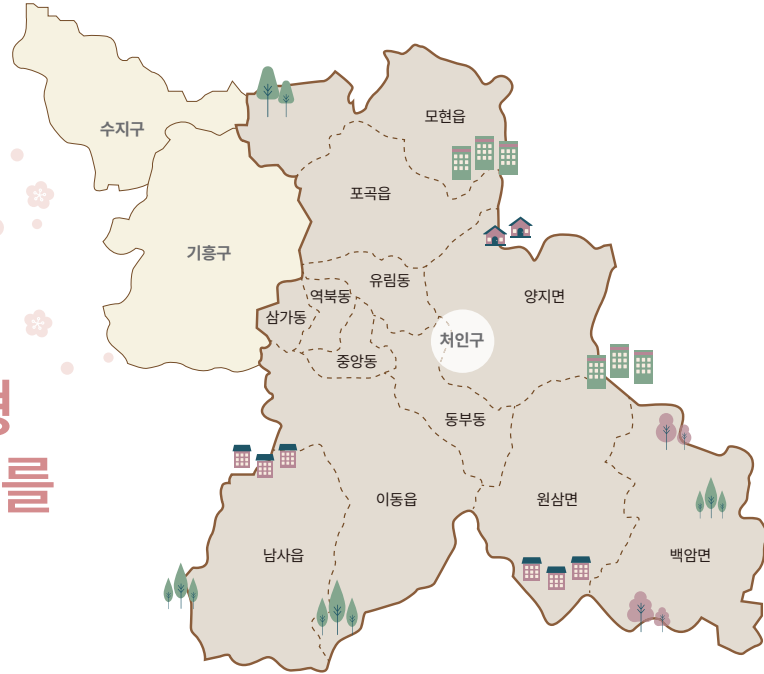
STORY 05

교육 참여 후기

가보니
해보니

처 인구 '용인형 마을자치학교'를 열다

글 하정미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용인형 마을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형 마을자치학교'는 주민이 소통과 합의를 기반으로 더 좋은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용인시 관내 38개 읍·면·동 각 마을에 전문 진행자를 파견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처 인구는 3월 16일 동부동을 시작으로 12개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 272명이 참여하였으며, 마을의 변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2회기 총 8시간 동안 마을 주민과의 관계 맺기부터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 마을의 변화를 위한 마을사업구상,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의 중심 주제로 진행하였다.

시 관계자는 "마을자치학교는 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화합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8시간의 짧은 교육 시간이지만, 참여자들은 기존의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닌 모듬으로 함께 마주 앉아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마을 내 협력지수를 높이는 게임도 진행하며 즐겁게 참여하였다.

센터는 이후 수지구와 기흥구의 참여자 인원과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심화교육을 요청한 처 인구 내 읍·면·동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기획자 로컬을 열다

처인구 마평동 고영신



로컬문화를 기획한다~!

이 멋진 문구에 끌려서 신청했습니다. 로컬 자원을 기반으로 기획을 한다니 의미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5주간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인구 원삼면, 남사읍, 양지면, 중앙동, 포곡읍, 기흥구 동백 등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이 사는 도시와 농촌에서 특별함과 매력을 찾아서 기획을 하고 싶다는 열정은 모두 같았습니다. 우리는 강사님의 독특하며 유쾌한 리더로, 낯선 디지털 리듬에 맞추어 손가락을 맞대어보고 몸을 비틀고 웃음도 터트리며 서로의 벽을 천천히 무너뜨렸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시간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부여에서의 일정입니다. 마을주민 수가 줄어드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규암면 마을주민들과 청년 예술가들의 노력으로 어떻게 마을이 변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마을의 특산물과 청년의 아이디어가 연결된 ‘부여제철소’라는 레스토랑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심화 과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진행할 프로젝트도 준비 중입니다. 지역문화 기획으로 바람을 일으킬 로컬문화 기획자들, 파이팅~!

농촌마을 리더대학을 가다

죽능리 부녀회 유계선

많은 비가 내린 후인 지난 6월 20일, 처인구 마을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2023년 농촌마을 리더대학 2기 첫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마을공동체 설립을 위한 여러 서류준비와 작성법 등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마을 자치 정관을 만들 때 실제로 필요한 제반의 서류를 나눠주시며 활용방안도 공유해주셨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당함에 대응할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마을회의 만들기, 기록관리를 배우고 실제 토론과 기록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 마을은 주부들이 조금씩 투자금을 모아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용해서 쌀가루빵을 만들어 이윤을 창출하고 견학,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농촌 마을 리더라면 꼭 알아야할 내용으로 채워졌고, 변화를 이끌 우리에게 ‘함께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구자인 소장님의 ‘일소공도란 일만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설명을 되새겨보며, 일과 공부를 적절하게 병행하며, 소처럼 우직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많은 일을 똑딱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소공도 합시다!





마을 코디네이터가 되다

금어1리 강예령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마을 이장인 남편과 함께 ‘마을 코디네이터’ 교육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력과 소통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육에서는 마을 운영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와 경험을 통해 그 적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문제 해결,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면서 마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운영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뤄지는 어려워서 주민들, 지자체,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많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마을 코디네이터로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노력하여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배운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마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이 더욱 번창하고, 주민들이 화합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을 주민으로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함박웃음 꽃이 피다

마성1리 김종배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 모두가 힘겨울 때, 우리 작은 마을이 ‘문화섬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많은 작은 마을에 이 프로그램이 잘 유지될까 싶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정기 수업이 끝났는데도, 가을건이에 고단한 일과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마을회관으로 소풍 가방들을 들고 삼삼오오 오시는 모습들은 아이처럼 밝고 생기들이 넘치신다. 웃음기 없던 어르신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시면서도 운동을 마치고 가시는 얼굴에는 함박꽃이 활짝 피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손동작 하나에도 쑥스러워하셨는데, 이제는 부담 없는 예쁜 공과 부드러운 수건이 좋은 운동기구가 되었

다고 말씀하신다. 전에는 소파나 방바닥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시곤 하셨는데, 이제는 수건과 공을 안마기처럼 사용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인다. 마치 젊음을 되찾으신 듯 즐거워하신다. 농사일로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려웠는데, ‘문화섬 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의 힘으로 이웃과 안부를 나누게 되었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서로 준비한 간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친목을 다지는 일도 참 좋은 일이다. 큰 고목의 그늘처럼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라 하시는 어르신들 배려에 감사와 연륜을 배운다. 이 좋은 프로그램이 거미줄처럼 연결고리가 되어, 100세 시대에 모든 마을회관의 경로당으로 멀리 전파하길 바라본다.



행복과 건강이 꽃피는 물빛누리 주내마을

두창4리 장상교

“그게 되겠어~ 누가 하겠어!” 이런 주민들의 반응이 이제는 “그래!! 우리 마을도 할 수 있어!! 해보자!”로 바뀌고 같이 힘을 보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아름다운 마을, 살기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을은 주민 참여로 보다 나은 마을을 만들어보고자 ‘현장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주민복지 향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마을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의 공간을 활용, 우리 마을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계획해 보기로 했지요. 2차 포럼에서는 우리 마을 가치를 찾기 위해 팀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 자원을 찾아서 마을지도를 만들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먹거리와 놀거리, 볼거리를 팀별로 발표도 했습니다. 팀별 제일 큰 관심사는 동네 한 가운데 위치한 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레저 체험 공간 조성이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문화복지 분야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강원도 영월에 삼돌이 마을과 포도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와인사업을 진행하는 예밀촌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마을의 조직 구성과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포럼 시간에는 4가지 비전을 논의하였습니다. 저수지 둘레길이 아름다운 주내마을, 기억에 남는 주내 두창4리, 행복한 두창4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주내마을! 현장 포럼을 진행하면서 마을에 대해 이모저모를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참여가 마을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첫 번째 덕목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하고 참여시켜 마을육성사업에 하나가 되는 두창4리가 되길 되길 바랍니다.

배후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두창5리 목창균

두창5리는 2024년 8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8주간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원으로 배후마을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잼 만들기, 종이공예, 도자기 만들기, 다육식물 재배, 로션 만들기, 짬뽕, 그림그리기, 사진 등의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신청자가 너무 많아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젊은 주민들께서 양보하셔서 더욱더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시는 것은 유능한 자원봉사자 강사님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원삼에 이렇게 훌륭한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이 많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배후마을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참가하신 분 모두가 무척 좋아하시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앞으로도 나이가 많아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파이팅!



다시 활력을 찾게 된 '문화섬탈출'

두창6리 김은해

코로나 여파로 마을회관 문을 닫아야 했을 때,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구부러진 등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동네를 배회하시고 회관 문을 두들기고 흔들어보다가 정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 “엄마, 문 열 어줘” 했을 때, 문이 잠겨있는 것을 알고 속상해하는 모습인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웠어요.

다시 회관 문을 열게 되면서, ‘웃음이 없던 어르신들 얼굴에 어떻게 하면 활력을 찾아 드릴 수 있을까’하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화섬탈출’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끌벅적 분위기에 어떻게 수업이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괜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시고 부담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도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수업부터 모두가 강사님 말씀에 귀가 쫄긋, 눈이 반짝, 집중하는 모습에 안도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다양한 모양과 색깔, 무늬를 살려서 마음껏 뽐내기 시작했어요. 강사님은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 천천히 설명해주셨고, 재료도 여유롭게 준비해주셨습니다.

논일, 밭일 하다가 수업시간에 늦어서 허겁지겁 호미와 낫을 들고 회관에 들어오신 분도 계셨고, 강사님 말씀을 이해 못 해서 작품을 완성하지 못해 속상하신 분도 계셨고, 한 달 후에 오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줄 거라고 정성을 들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옛날에 시집와서 많이 해 본 거네. 시어머니 생각도 나” 모두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손 감각이 살아 계셨어요.

오랜 연륜과 경험은 지혜를 쌓는 것처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치매 예방, 건강프로그램도 해 보고 싶고 이런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 훈훈한 마을로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실버들의 무용

완장3리 이순옥

올 해 우리 마을은 다리가 아픈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실버체조로 즐거운 여름과 가을을 보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체조를 배웠어요. 팔다리 운동을 앉아서 하였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고 나면 땀이 나서 효과는 좋았지요. 강사님이 하시는 대로 잘 따라 하고서도 강사님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하면 “몰라요~”하며 웃는 일이 많았어요.

참여한 사람 중 반이 80대라서 한번 움직이고는 “아이~ 힘들다 힘들어”하면서 웃는게 더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장 최고령은 90세입니다. 허리도 꼬부리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손뼉 치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해주셨어요.

우리를 가르쳐주신 유경애 강사님도 참 고맙습니다. 딸 같은 강사님을 만나서 잘 배웠고 건강 상식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어르신들

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몸도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얼떨결에 이것을 맡으면서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각만큼 힘들어도 참 살만한 마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한번 하면 끝까지 간다!” 하는 어르신들의 도움이 매우 매우 감동이었답니다. 어르신들이 이번에 배운 체조로 평상시 건강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남녀노소가 마을회관에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을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할아버지가 많으시거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같이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센터 담당자님과 도움주신 우리 이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농촌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발표회

용인시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처인구 읍면 등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농촌팀의 사업으로서 2023년 11월 25일 용인시 자연휴양림 내 산림교육센터에서 문화섬탈출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진행하였다.

글 김은화

10개 마을,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문화섬탈출 성과 발표와 함께 도농상생교류, 현장포럼 등을 진행하였으며, 용인시 농촌마을의 문화서비스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마을문화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회자·발표자·강사·참여자 등을 비롯하여 모든 행사내용이 주민주도로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수개월 동안 마을마다 50대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매주 20~30명이 수고로움을 감내하며 체조·합창·요리·미술·게임·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해 주셨다. 마을마다 함께 동참하고, 마을과 주민들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다고 한다. 이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가 주민들 생활 속으로 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며, 모든 분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불가능할 것 같던 무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마을주민들과 강사들의 열정 덕분에 멋진 모습을 다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소외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함께 웃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함께 해요 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치유농업 교육생 이은경

창문을 통해 자연이 보이는 경관은 수술 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과의 접촉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마음의 변화가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농업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요. 치유농업의 이해와 배경 이론, 치유농업 현장에 대한 강의와 선진지 견학으로 6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충족감을 느끼고 회복을 도모

치유농업은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농업 활동을 말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아직 아프지 않았을 때의 예방이나 더욱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치유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충족감을 느끼고 회복을 도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농업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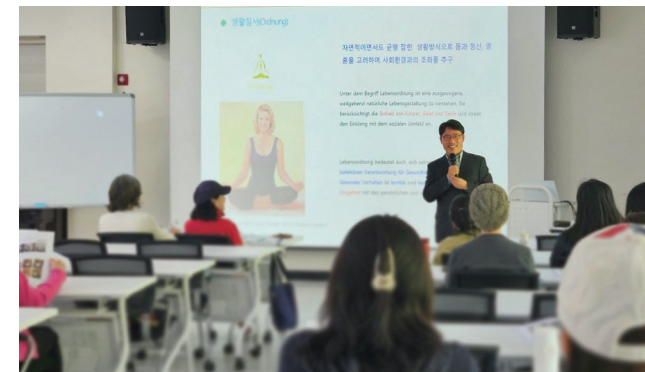
병원의 치료정원뿐만 아니라 치유농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봄·건강·복지 등의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도 배리어 프리 디자인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조경에도 관심이 많아서 치유정원 수업이 특히 좋았는데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서 주변의 경관이나 농장 내부의 조경이 방문객의 자연과의 교감이나 치유에 정말 큰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치유농장 조성 중

네덜란드나 독일 등 이미 치유농업을 오랜 기간 운영한 곳에서도 실내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작물을 가꾸거나 산책 공간의 조경도 인간 친화적으로 조성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치유농장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성중이라고 하니 그곳에서 다양한 분들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신체적·심리적·인지적·사회적으로 유익한 치유농업에 대해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치유농업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농업 활동



용인 농촌의 미래를 꿈꾸다! 스마트 드론 교육

고당1리 이현미

처음 드론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교육장을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필기도, 실기도 쉽겠지 하고 생각했던 제 생각은 큰 오산이었네요. 필기 책을 읽어보니 어렵게 느껴지며 한 번에 합격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론 실기 교육을 받으며 기계 점점부터 시동을 걸고 처음 이륙할 때 이건 너무 쉽겠다고 생각했어요. 호버링부터 처음 듣는 용어들을 외워가며 실기 교육을 받았고 1~3회차를 지나며 어려웠던 마음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다음날은 실기 교육 과정 중의 한 가지 한가지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어 재차 연습하고, 배터리가 소모되어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간도 제겐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교관님만큼의 기술은 아니지만 교관님이 알려준 대로 학습해 보니 어느덧 방재단 활동을 하는 제 모습이 그려졌고 기대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꼼꼼하게 알려주는 교관님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지원사업 덕분에 앞으로의 농업사회에서 필수가 되어버릴 드론 교육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드론 교육 과정이 쉬운 건 아니지만, 잘 배워서 실생활에 활용한다면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교육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더 활성화되어 용인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상한! 네트워크 DAY

진목1리 안성열



저희 용인시 한여농(한국여성농업인)은 작년 말쯤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육을 접할 때는 일방적으로 듣는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참여해보니 회원들이 동참하고 체험하고, 호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저 또한 만족스러운 교육이었습니다. 농업만 하는 저희 한여농 회원님들의 희로애락과 삶의 원동력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에 또 다른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회원님들의 일상을 알게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지역네트워크에 거는 기대 또한 컸습니다. 참여 인원도 처음 생각했

던 회원 수를 넘게 신청해 주셨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교육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주제부터 우리가 선정하고 우리가 이끌어 가는 점이 저희의 마음을 들뜨게 했고 이야기를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도 저희와 한마음이 되어 주셔서 주제를 끌어내는데 아주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표현하고, 타인에게 나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인해 받고 싶은 교육과 주제가 정해졌으니 올해 일 년 동안 몇 번 되지 않지만, 그 어떤 교육보다 알차고 보람찬 교육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용천2리 어르신들과 만나는 인지보드 수업

용천2리 강사 장선화

햇살이 따가운 여름 오후, 용천2리에 도착하니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골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를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도착한 마을회관에서는 50대 후반부터 96세에 이르는 어르신들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환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게 된 공동활동 프로젝트는 마을에 계신 어른들에게 찾아가는 수업으로 미술 수업과 실버 인지 보드게임 수업이 10회 진행되었습니다.

미술 수업에서는 목공 수업으로 소반 만들기, 이오난사 책 화분 플랜테리어, 가죽 공예인 핸드폰 가방 만들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손을 직접 움직이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활동에 큰 흥미를 보이셨고,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뿌듯해 하셨습니다. 실버 인지 보드게임 수업에서는 다양한 보드게임을 통해 어르신들의 집중력과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기초적인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게임을 통해 서로 웃고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용천2리에서의 수업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넘어,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을회관으로 소풍 가요~

천12리 임혜숙

이번에 노래교실에 참여한 노인회장 임혜숙입니다. 어느 날 이장님께서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동활동 프로젝트에 마을별로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노래 교실을 신청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무료했던 생활이었는데 노래하고 박수치고 웃으며 주민들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좋고 신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노래교실 하는 날에는 저희 경로당 회원들끼리 김밥도 만들어 먹고 서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는 만남의 시간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노래교실을 한다고 하니 꼭 소풍가는 기분이었고 노래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스트레스도 확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행복했고 노래교실이 열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노래방 기계를 가

져와 주셔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시간 동안 저희 경로당 회원들끼리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래교실이 기다려지고 신났던 건 멋진 강사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시원한 목청으로 신나게 노래를 뽐어주시던 카리스마! 늘 밝게 찾아와 주시던 그 사랑스러운 몸짓과 예쁜 말투와 아름다운 마음 덕분에 저희 경로당 회원 모두 3개월 내내 선물 받은 듯한 즐거운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너도나도 즐거웠다고 하시니 노인 회장으로서는 뿌듯합니다. 저희 마을에 오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 봅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접어지는 느낌

가창3리 김경자



마을공동체 수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지만 오랜만의 교육으로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시고 특히 박수치며 즐겁게 노래하는 시간을 매우 좋아하셔서 주관한 입장에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시고 보드게임에서 지면 때론 실망도 하시지만 바로 게임 내용을 이해하시며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마을회관에 즐겁게 계시는 모습에서 우리 마을 노인분들과 함께 접어지는 느낌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센터에서 마련해주신 간식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공부도 시켜주고 맛난 것도 준다면서 엄청 좋아하십니다. 살기 좋은 우리나라, 수고해주시는 지원센터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 요가 수업

대대2리 김명구



안녕하세요~ ‘즐거운 마을 이웃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대2리 이장 김명구입니다. 매주 찾아오는 요가 시간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분들과 함께 하다보니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가 시간이 기다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으면 이웃을 자주 볼 수 없고, 서로 만나지 않으니 여러가지 작은 오해도 생길 수 있을텐데, 함께하는 수업으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겨서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의 힐링을 주었던 건강체조

매산4리 이희숙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건강체조는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의 힐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서로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문 강사님이 수업을 진행하셨고 다양한 동작과 호흡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체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 후 주민들은 ‘몸이 가벼워졌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수업이 정기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셨습니다.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업이 있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장으로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우리 마을에서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이 느낀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음센터 전경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곳 원삼면 이음센터

원삼면에 새로운 공간이 열렸다. 이름하여 <이음센터>다. 3.1운동 만세 시위지 뒤편, 예전 원삼면 시립어린이집 자리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공간이 생긴 것을 축하하는 개막식에 조금 서둘러 도착했다.

글 손수정

원삼면 이음센터 문화광장 개막

노란색 건물로 새로 태어난 2층 건물 앞마당에 하얀 천막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커다란 축하 화분들이 늘어서 새로 생긴 공간을 축하하고 있었다. 나눠 주는 안내문에는 이 앞마당이 '원삼면 이음센터 문화광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앞쪽에 마련된 무대에는 하얀색 셔츠를 맞춰 입은 원삼색소폰 동호회의 공연 준비가 한창이었다.

주민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이음센터'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44억원(국비 28억7천4백만원, 시비 15억3천백만원)을 확보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생활 SOC¹를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주민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행사 시작 전, 가볍게 공간을 둘러보았다. 연면적이 476㎡이고 지상 2층 규모인 시립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인테리어를 막 마친 깔끔한 공간이었다.

1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생활밀착형 사회기반 시설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출처: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처인구 고당로16번길 3



이음센터 제막식 행사 전경

1층에는 미니 카페테리아 같은 방이 있다. 이곳에는 테이블이 있어 주민들이 둘러앉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른 방은 아직 가구 등 물품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취미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지 수채화 동호회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1층과 2층의 방마다 공간 활용 예시로 악기 연주, 미술, 체육 활동 등의 기대를 심어주는 그림이 안내판을 대신하고 있었다. 관계자에게 여쭙보니, 이음센터는 주민 주도로 운영될 예정이라 명확한 공간 구분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공간을 모두 둘러본 후 다시 밖으로 나왔다.

색소폰 동호회의 공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밖은 벌써 많은 손님으로 북적이고 서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였다. 날은 잔뜩 흐렸지만, 다행히 비는 오지 않고 후덥지근한 날씨여서 나눠 준 얼음물이 매우 반가웠다. 약간은 어색한 관찰자 시점으로 개막식을 관람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연습하고 공연 준비까지 한 시민 예술가들의 공연이 끝났다.

처인구 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사회자의 내빈 소개가 시작되었다. 국민의례도 하고 한상의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이우고, 원정재 주민자치위원장의 운영보고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경기도 의회 김영민

의원, 용인특례시 의회 김영식 의원의 축사도 들었다. 처인구의 많은 주민이 이 공간을 이용하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이었다.

5년이 소요된 긴 여정의 마무리

모든 순서가 끝나고 드디어 제막식 순서가 되었다. 모두 조금씩 상기된 표정들이다. 어쩌면 겉보기에는 평범한 식순이지만 주민들로서는 5년이 소요된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그러면서 '공간 운영'이라는 큰 숙제가 또 시작되는 시점이 감개무량할지도 모르겠다.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커다란 막이 걷히고 주 출입문이 나타났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아직 공간 안쪽을 보지 못한 참석자들이 함께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저기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났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설물 하나하나 둘러본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1층 카페테리아 공간에서 주민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은 새로운 공간에 대해 기대하며, 답례품 떡과 백옥 유기농 쌀 한 봉지가 든 종이백을 손에 들고 차례차례 자리를 떴다. 나 역시 이음센터가 말 그대로 처인구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이 되어 '이음'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동네 어귀에 세워둔 차로 향했다.



제5회 원삼면 황금들녘 허수아비 만들기 축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2024년 10월 5일,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원삼면 이음센터 공연장에서 제5회 원삼면 황금들녘 허수아비 만들기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는 특별히 농촌테마파크에서 이음센터로 장소를 옮겨,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방문객이 함께해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는 기회를 얻고 새로운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글 안선영

환영 인사와 의미 있는 시작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원삼면 주민자치위원회 원정재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원 위원장은 매년 농촌테마파크에서 열리던 허수아비 축제가 올해에는 원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이음센터에서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음센터가 원삼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참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을 다짐했다. 이광수 전 조합장과 허정전 조합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봉경화 사무국장도 축사에 나섰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시길 기원했다. 또한 원삼면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겼다.

주민들의 손길로 완성된 작품들

특히 이날 축제에서는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배후마을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원삼에서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 8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차시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 교육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두창5리, 미평2리, 맹1리, 사암3리, 사암5리, 5개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선배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으며 그동안 배우고 함께 만든 도자기, 벚짚리스, 테라리움, 천연염색 파자마, 종이접기&그리기, 도어벨, 버섯 스프레드, 천연화장품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전시는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전시에 참여한 한 주민은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만든 나의 작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으니 너무 뜻깊고 뿌듯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채로운 체험과 즐거움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원삼면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였다. 허수아비 만들기, 벚짚리스 만들기, 허수아비 손수건, 허수아비 도자기컵, 테라리움 & 종이접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되어 많은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였고, 허수아비 만들기와 가을그리기 대회는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단체 위원장들이 직접 심사하여 시상하는 시간도 마련해 많은 아이들이 참가해 더욱 기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체험 활동 중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소통하며, 이야깃거리가 넘쳐나는 체험장이었던 점은 참 인상 깊었고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다.

맛있는 먹거리와 따뜻한 소통

김밥과 떡볶이, 어묵 등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 먹거리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특히 쫄득한 떡과 고소한 기름이 잔뜩 발린 김밥은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즐거운 체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순간은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끌어냈다.

학생들의 소중한 경험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생생한 소감도 빼놓을 수 없다. 송곡초 3학년 안지수 학생은 “벚짚을 처음 만져봤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직접 만든 벚짚리스는 제 방에 걸어 둘 거예요.”라고 전했고, 좌향초 2학년 최이솔 학생은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엄마랑 와서 허수아비 만들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밝히며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원삼초 2학년 김수현 학생은 형, 누나와 함께 허수아비 만들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전시된 우리 허수아비를 보니 자랑스럽다며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다.

원삼초 6학년 이나연, 김수애 학생은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재미있는 체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전하며 내년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모두의 마음을 담은 축제

제5회 허수아비 축제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축제로 지역 사회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다하며, 이음센터의 홍보와 함께 원삼면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중한 가을의 기억을 남긴 뜻깊은 시간이었다. 내년에도 원삼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더욱 풍성한 행사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즐거움 마을단위 완료지구 상덕마을

상덕마을 장용기 이장

이동읍 서3리 상덕마을은 이동읍 서북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시내와 시청이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도 자연마을을 유지 중이다. 현재 140여 가구에 신·구 주민이 7대 3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406명 주민이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 마을이다. 우리 마을은 수년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여 2024년에는 마을단위 완료지구 활성화 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되었다. 몇 차례 개발위원회를 열어 4가지 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하였다.

첫 번째 수업은 인지수업

인지수업 처음에는 어르신들께서 탐탁지 않게 생각도 하셨지만 수업 시간에 노래와 율동, 공작물 맞추기를 하면서 수업에 빠져 집중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경로당 회원들께서는 매월 1일과 16일, 한 달에 두 번 정기회의를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인지수업할 때 율동하면서 움직이고 나서 밥을 먹으니 밥맛도 좋으시다고 하셨다. 우리 마을은 50년 전부터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1년에 두 번 꽃과 단풍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모시고 다닐 때는 젊고 젊었던 분들이 지금은 옛날 분들이 되신 분도 많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찢힐 때도 있다.

퓨전장구(난타) 수업

퓨전장구(난타) 수업을 결정하면서 희망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걱정하였으나 신청자 공지를 한 결과 20여 명이 신청하였다. 일주일에 1회 수업으로는 숙달이 되지 않으니, 일주일에 3~4번씩 별도로 연습하시는 노력과 열정이 대단했다. 얼마되지 않는 시간에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프로 수준이다.

사업이 끝나도 계속 동아리 활동으로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상덕마을의 마스코트로 상징이 되는 팀이 되어 공연도 다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마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은 지원할 생각이다.

태양광 도자기 보안등 만들고 설치하기

우리 마을은 1000년이 넘는 고려백자 도요지가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는 조그마한 돌레길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밤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여기서 착안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생각하여 태양광 도자기 보안등 50개를 설치하기로 결정



하여 도자기등 만들기 수업을 하였다. 수업 시간에는 어릴 때 흙장난하던 생각이 난다며 도자기등을 만들면서 즐거워 하셨다. 설치하면 매년 만들었다는 기쁨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미넝쿨 지지대 설치

우리 마을은 수 년 전부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돌레길에 화단을 만들어 장미를 심었다. 아직 장미넝쿨 지지대를 설치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으나 이번 사업으로 전주민 참여로 합심하여 지지대를 설치하고 장미넝쿨을 정리하여 앞으로 장미꽃이 만발한 돌레길이 될거라 기대한다.



모두 함께한 성과공유회

"즐거움 마을 이웃과 함께!" 성과공유회

2024년 용인시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처인구 7개 마을에서 "즐거움 마을 이웃과 함께!" 프로그램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며 진행되었던 마을 별 프로그램의 성과공유회(결과발표회)가 10월 25일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글 이병연

고당리 장아찌 전시 및 시식회



가창3리, 용천2리 작품 전시

매산리 맵시체조



제일리 풍물단



천12리 노래교실



가창리 주민들

화창한 가을날 오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3층 옥상에서 가창리와 용천리 주민들의 작품 전시와 고당리 주민들의 숨씨를 담은 장아찌류 전시와 시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속, 이웃들과 함께하는 옥상정원에서의 식사는 그야말로 천고마비 아니 천고인비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양지면 대대2리(요가)와 제일2리(사물놀이), 모현읍 매산4리(맵시체조), 이동읍 천12리(노래교실), 백암면 가창3리(인지놀이)와 용천2리(인지보드게임), 원삼면 고당리(발효식품). 차례차례 마을별 발표가 있었고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발표하는 마을, 공연하는 마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마을의 자량을 뽐내주었다.

대대리와 매산리 주민과 함께하는 발표와 많은 회원이 함께해주신 천리의 노래와 율동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특히 제일리의 사물놀이 공연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제일리 풍물단으로 오래오래 지속되길 기대한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이웃과 함께 즐겁고 보람있게 만들어 낸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건강한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2024년 한 해의 일들이 지속적인 밑거름이 되어가길 기대한다.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7개 마을주민, 외부 강사님, 센터 직원 그리고 용인특례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활동가 소감



강은주

2023년 여름 장마철에 찾아간 용덕사는 내가 알던 용인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용인의 '조아용'이 용인이라 생긴 줄 알았는데... 용덕사엔 용의 전설과 조선 후기 의병항쟁과 일제강점기 3.1만세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이라는 걸 알았다. 2024년 백암에서 봄기운과 같은 양춘모 대표를 만나 좋은 말씀과 몸소 실천하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늘 배우고 실천하기를 늦췄던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용인의 여기저기 마을과 더 많은 사람 향기 가득한 분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용인의 이야기와 용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손수정

“덕분입니다.”
올해는 운전을 많이 했다. 농촌마을기록지 '처음(處音)'에 담을 글을 쓰기 위해 구석구석 다닌 덕분이다. 대상을 찾아가는 일은 일상에서 벗어난 '쉼'의 시간이었다. 어쩌면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다녔다. 벚꽃이 흐드러진 봄의 경안천도 걸었다. 사라져 가는 새들과 그 새들을 기록하는 예술가도 만났다. '이 길이 맞나?' 싶게 구불구불한 시골길에서 마침내 취재원을 만났을 때의 기쁨도 있었지만, 다녀와서 글을 쓰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교육을 들었고, 기록물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 문헌과 인터넷 조사에 시간을 많이 들였다. '처인학 연구원'이 된 기분이기도 했다. 역사적인 지역들을 다녀서 더욱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올해는 고려 시대 백자를 구웠던 이동읍 서리 가마터와 조선 시대 '동창가'를 지은 빼어난 문인이자 공신이었던 약천 남구만 묘가 자리하는 모현면을 둘러보았다. 한번 조사를 시작하니 더 큰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깊게 알 수 없었을 것 같아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기록'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해 준 '로그온' 멤버들, 세심하게 챙겨준 마을 공동체 센터 이지연 담당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명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을 자원조사 활동 참여로, 특히 처인구에 있는 여러 곳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로 원삼 지역과 그 외 지역, 이동, 동백 쪽도 가 보면서 용인이 참 넓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가끔 경부고속도로로 올라오다가 보면 지역 경계 표시가 용인, 오산, 화성 나오고 또 용인이 나와서 용인 참 넓다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긴 했다. 용인 3.1만세운동 그 발생지인 좌찬고개, 용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및 기념탑, 석포숲, 용덕사, 용덕저수지, 이동저수지(어비리저수지), 할미산성, 조비산, 유형원 선생 묘, SK하이닉스 산업단지 개발지 등 양지, 이동, 원삼 지역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그 외에 두창리 3층석탑, 한덕골 성지, 용인농촌테마파크, 용인대장금테마파크, 한택식물원, 영남길 등 여러 유적지나 흥미로운 곳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없어 모두 둘러보지는 못했다.
이번 마을 자원조사 활동을 통해 처인구의 역사적 장소들을 다녀 보니 수지, 기흥 중심으로 도시 개발되던 시기 이전에는 처인 쪽이 용인의 중심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임을 알게 되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번 기록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용인을 좀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고영신

처인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을 정도로 힐링이 되는 장소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 참 많다. 글과 사진으로 담아내기에 너무 넓은 곳이었지만, 2023년부터 시작된 처인구 탐방은 동료들과 일정을 정하고 방문할 때마다 늘 설레임이 가득했다.
앞으로도 처인구의 보존되었으면 하는 아름다움과 드러났으면 하는 곳의 이야기들을 계속 글, 사진 그리고 그림으로 담아내고 싶다.



민지연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변화한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이다.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자단 활동을 통해 내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진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였다.
특히 "100살 아래는 다 똑같아. 한창 배울 나이지."라던 한 어르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열린 자세로 배우고 또 낮은 자세로 숭수수범하는 마을주민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선명하다. 또한, 육아맘의 입장에서 육아 공동체를 취재한 일은 남다른 보람이었다.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 소리를 들으며, 올바른 어른이 되 겠노라 다짐도 하고~^^ 더불어 매일 만나는 가장 작은 공동체, 우리 가족(아들 도율이 와 내 편)도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다.
독자분들 역시 새 해에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와 마주하는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남미애

용인시 처인구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지역이다. 이번 자원 조사를 통해서 처인구가 다양한 인적, 물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용인은 예로부터 삼남의 통로라 불리며, 서울과 남부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서 덕분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발전하며,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원 조사를 통해 어느 지역보다도 만세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독립운동가의 발자취가 남겨있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일부 지역은 안타깝게도 대규모의 산업시설 건설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기록으로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 정말 의미있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자원조사 활동가로서 자부심도 느껴졌다.
자원조사 활동가들과 활동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웃고 배우는 즐거운 시간이었고, 전문가 초빙 강연, 글쓰기 특강, 사진 촬영 등의 역량강화교육도 지역자원조사의 접근과 방향성을 잡고 자원 조사를 하면서 자연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힐링하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속속들이 더 알아가고, 모르는이에게도 처인구의 소리가 전해져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지역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누리며 함께 행복해하길 소망해본다.

용인 농촌마을 기록집 스토리



용인농촌마을지 1호
2023년 5월 발행



용인농촌마을지 2호
2023년 8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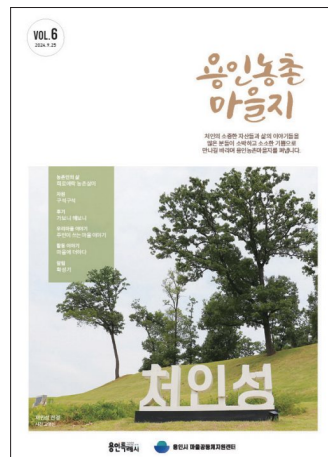
용인농촌마을지 3호
2023년 10월 발행



용인농촌마을지 4호
2023년 12월 발행



용인농촌마을지 5호
2024년 5월 발행



용인농촌마을지 6호
2024년 9월 발행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용인 미평리 역사여래입상

미륵의 나라(2006 우리출판사 최중례)
내고장용인문화유산총람(1997 용인문화원 이인령)

호국사찰목리 용덕사

용덕사-디지털용인문화대전(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용덕암창건기-디지털용인문화대전(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용덕사 나한상군-디지털용인문화대전(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임옥여-공훈전자자료관(국가보훈부)
용인 용덕사-금강신문(2009.11.20. 최동진 기자)
용인 용덕사, 용이 뿔어놓은 바위틈 하늘빛 '부처님의 미소' 살포시 - 중부일보(2022.7.25. 이서현 용인시청 학예연구사)

포은 정몽주 선생의 뜻을 기리는 포은문화제

포은문화제 누리집 poeun.co.kr

"위로하듯 지는 붉은 해를 만나다" 어비낙조

어비울 CD와 어비울 마을지(2007 이동면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awris.ekr.or.kr/main.do

용인의 물줄기 경안천을 가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 누리집 khms.or.kr
서울도시계획포털 누리집 urban.seoul.go.kr
하천정보관리시스템(RIMGIS) river.go.kr 《2011 경안천권역 하천 기본계획정보 보고서》 '제2장 유역 및 하천특성 조사(국가)' (HWP)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ww.wamis.go.kr
디지털용인문화대전 yongin.grandculture.net/yongin
이용수 (2010). "경안천 발원지 답사기" (PDF)
《하천과 문화》. 6권 4호 (서울: 한국하천학회)

용인 3.1만세운동 첫 외침의 발자취를 찾아

원삼면지(2005 용인문화원)
만세운동, 무장 독립투쟁, 그리고 용인(2021.4.1. 용인시민신문)

처인성, 800년 역사의 현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용인 석포숲 공원의 아름다움

산림청보도자료 2012.4.4., 2012.10.16., 2012.12.31.
노옹이 한평생 가꿔 물려준 '석포 숲'에서 보았다, '歲寒(세한)'을 나는 지혜를...(2022.1.15. 조선일보 박근희 기자)
[삶의 향기] 국보 '세한도' 국가 기증 손창근 선생, 아들이 말한다 (2020.12.17. 월간중앙 202101호 문상덕기자)

용인 서리, 고려백자 초기의 원형을 찾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를 찾아

반계수록 영인본(1982 명문당)
반계 유형원 연구(2013 성균관대 출판부)
유형원선생묘-디지털용인문화대전

약천 남구만 선생의 흔적을 찾아서

속종실록(肅宗實錄)
약천집(藥泉集)
디지털용인문화대전 누리집 grandculture.net/yongin
용인시문화관광 누리집

할미산성의 옛 흔적

용인역사문화지도(2015 용인문화원)
용인의 문화유산(2019 용인시)
용인 할미산성 6년의 기록, 그리고 사람들 (2018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용인학(2021 용인시정연구원)

조비산의 산마루에서

용인학(2021 용인시정연구원)
백암면지(2006 용인문화원)
아름다운 용인의 산하(2009 이제학, 용인문화원)
너울길 따라 걷는 용인산(2012 이제학)
용인시관광가이드북(2011 용인시)

민간 신앙의 토대가 된 창리 선돌

창리-디지털용인문화대전
용인 창리 선돌-디지털용인문화대전
용인 창리 선돌-국가유산청

도심 속 재래시장, 용인중앙시장

김량장의 유래-디지털용인문화대전(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입소문 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13일까지 개장 (이데일리 2024.10.31.)
김량(金良)의 유래(용인시민신문 2008.10.02.)

양지에서 고요한 산책을 하다. 은이성지와 양지성당

두산백과
디지털용인문화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용인관광포털사이트 yongin.go.kr/home/yitou

용인 농촌마을 기록집 처음(處音) - 처인구의 소리

발행일 24. 11. 25.

발행인 김찬수

발행처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1, 2층
T. 031-335-1070 F. 031-335-1071
E. center@yongincommunity.org
H. www.yongincommunity.org

기획·편집 이지연

글·취재 로그온
디자인·인쇄 닷지디자인

© 이 책의 저작권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복제와 전제를 금합니다.